

당권이나 대권이나... 김부겸 결단에 쏠린 눈

더민주 당권레이스 최대 변수로 떠올라

주류 친문세력과 한판대결... 흥행도 기대

金 “이달 안 입장낼 것”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의원의 출마 여부와 호남 민심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일단, 김부겸 의원은 아직까지 당권 도전 여부에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비주류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당권에 도전한다면 주류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주류들과 한 판 대결이 펼쳐지면서 상당한 흥행이 기대되고 있다. 반면, 그가 당권 도전을 포기한다면 차기 전대는 친문 및 주류 주자들 간의 경쟁이 펼쳐지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22일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안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약속은 지키겠다”며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종걸 전 원내대표,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과 단일화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 그는 “앞서나간 얘기”라며 “자연스럽게 통화할 수는 있지만, 모여서 그림을 짜는 그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 내외에서는 김 의원의 ‘대선 직행론’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의 당역학구도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대표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김 의원이 당권보다는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김부겸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며 “패배가 승리가 되는 구

도가 아니라서 점에서 김 의원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호남 민심의 향배도 핵심 변수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아직까지 호남 민심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민주가 되찾아야 할 핵심 지지 기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남 민심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 냉랭하다. 과거 문재인-박지원 대결 구도와 같은 ‘빅 게임’이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

만, ‘호남 머느리’를 강조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과 전남 출신의 송영길 의원의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추 의원과 송 의원 모두 호남 민심의 정치적 갈증을 해소시킬 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처럼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더민주의 최종 당권 주자들이 정해지고 주류 대 비주류 주자 간의 대결 전선이 형성된다면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부겸 의원이 출마를 결행한다면 호남 민심을 기반으로 과거 노풍(노무현 후보 바람)과 같은 태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

다. 일각에서는 더민주의 당권 경쟁이 별다른 흥행을 일으키지 못하고 친문 및 주류 진영 후보의 압승으로 끝난다면 호남 민심의 역풍 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미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경선에 이어 당권에서도 친문·주류 진영의 힘이 다시 드러나면서 ‘문재인 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이다.

더민주 핵심 관계자는 “현재 더민주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전대가 역동성없이 끝난다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민주에게 오히려 약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동기자 tuim@kwangju.co.kr



무슨 얘기 나누나 더불어민주당 김중민 대표와 김부겸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본 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동기자

국민의당 박선숙 27일 검찰 출석

리베이트 의혹 사건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27일 사건에 연루된 혐의자를 소환할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오는 24일 박 의원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최근 요청했으나, 박 의원이 입장 정리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해 27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소환해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한 데 이어 23일에는 사건의 당사자인 김 의원을

박 의원까지 검찰에 출석할 경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맡아 선거 실무를 지휘한 박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를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이 당과 계약한 홍보업체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갖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동기자

주호영·이철규 새누리 복당 신청

승인편 129석

대한 일괄 복당을 승인했고,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당하기로 결정했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된 뒤 무소속으로 당선된 주호영(대구 수성구)·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이 22일 새누리당 복당을 신청했다. 이들의 복당 승인이 이뤄지면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 7명의 복당이 완료되고, 의석은 129석으로 늘어 더불어민주당(123석)보다 6석 많아진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강원도당에, 주 의원은 같은 날 오후 대구시당에 각각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7명 무소속 의원 전원

이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에 대한 일괄 복당 결정은 당이 지난 총선 공천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민심을 받들겠다는 변화의 의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 두 의원은 앞서 장제원 의원과 지난 20일 만나 복당 문제를 논의했으며, 장 의원은 당일 오후 입당원서를 냈다.

혁신비대위는 오는 23일 오전 정례회 의회에서 주 의원, 이 의원, 장 의원의 복당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친이’ 이재오 “대선 전 창당...후보 낼 것”

새누리당 출신의 이재오 전 의원은 최근 구 친이(친이명박)계 전현직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대 대선 전 중도 신당을 창당하고 가능하면 대선 후보도 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정병국·권성동 의원, 무소속 주호영 의원, 최병국·이운성·고홍길·진수희 전 의원 등과의 만찬 회동에서 “내년 대선 전에 신당을 만들어 후보도 낼 생각”이라며 창당 동력을 전국 개원추진 조직에서 얻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전 의원은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쳤었다는 이유로 계속

하나로 묶여있을 필요는 없다”며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또 “복당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회동에 참석한 한 측근은 “(신당 창당 같은) 힘든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정치 인생) 마지막으로 본인의 정체성에 맞는 중도 정당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김해 新공항론’으로 공약 파기 논란 돌파 시도

“공약파기 아니라 실현”...국민의당 “증축 계획일 뿐”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신공항 백지화’ 아니고 김해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란 논리를 펴고 나와 비판이 일고 있다.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약 파기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이지만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면서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신공항이 되는 것이며 김해공항을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신공항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운 문제이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피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친박계 좌장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공항 관련 5개 시도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신공항은 사실 확장이라고 보던 새로운 공항을 짓는 신공항 개념에 가까운 확장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론의 입장은 신공항 정책 발표 후 나타난 ‘신공항 백지화’ ‘공약 파기’ 등의 비판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초 새누리당은 전날 정부의 신공항 발표 직후 지상욱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신공항 건설 백지화와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정은 공신력이 확보된 기관과 전문가에 의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그 결과는 존중되고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를 ‘신공항 백지화’로 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곧바로 수정 논평을 내고 ‘백지화’란 표현을 빼버렸다.

여권의 이 같은 입장은 김해공항 확장을 통해 동남권 관문역할을 하게 될 신공항 건설 공약을 지켰다는 것으로, 정치권과 영남지역 정가에서 제기되는 공약 파기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 자문

위원들과 ‘통일대화’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는 김해 신공항 건설이 국민의 축하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제안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김해공항을 확장할 시에 기존에 우려됐던 항공기 이착륙시 안전문제나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수요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V자형의 신형 활주로와 대형 터미널 건설을 통해 처리 능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안전문제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여론의 입장에 대해 “사슴을 팔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지록위마: 指鹿爲馬)”며 “김해공항 확장안은 구공항의 재건축이고 증축계획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오픈 축

Self MG서양새마을금고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